

블루오션 어촌으로 오세요... 빈집 드립니다

오늘 aT센터서 최대 규모 '귀어귀촌박람회' 개막 전남도·전남어촌특화센터·고흥군 등 부스 운영

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17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귀어·귀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남도, 해양수산부 지정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도해양수산물과학원, 고흥군, 강진군, 완도군, 신안군, 장흥군 등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자! 블루오션(Blue Ocean)'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귀어귀촌박람회에는 해수부 외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어항협회, 수협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들이 참여해 190개의 부스를 마련했다.

또 귀어·귀촌에 관한 정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블루오션존', 맞춤형 강의를 듣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존', 각 지역 수산물을 시식하고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 등이 설치됐다.

가이드존에서는 귀어·귀촌을 원하는 사람이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어선어업·천해양식·내수면양식·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전문가 상담 및 강의를 활용한 진행

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박람회 기간 동안 특별무대에서는 황교익 맛칼럼니스트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김준 박사가 진행하는 특별 강연이 열린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어촌의 숨겨진 음식 관광 이야기', 김준 박사는 '어업과 어업인의 삶'을 주제로 살아 있는 어촌 이야기를 방문객들에게 들려준다.

미술관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유현수 셰프 등이 지역특산물 활용 요리 선 보이는 '바다세프 쿠킹쇼', 어촌 살림을 책임지는 '어촌계장' 어(漁)올림 토크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전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등은 귀어·귀촌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행·재정적 지원 대책 설명 및 여건 상담을, 고흥군 등 시·군은 빈집 제공 및 수리 등 정착 지원, 귀어 기술 교육 지원, 대출 상담, 어촌계 진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보고인 전남에 귀어·귀촌하는 도시 청년들을 위해 전남도와 각 지자체, 기관들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와 어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의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관정 뚫어 논 물대기 29일 오전 광주 북구 충효동에서 북구청 경제정책과 도시농업팀 직원들이 가뭄 해갈을 위해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논에 물을 대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취업난에 내집 마련 힘들어 농촌으로 간 20~30대

귀촌인 51.2%가 젊은층 2016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지난해 청년 취업난에 내 집을 마련하기가 힘든 20~30대 상당수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그 비율이 전체 귀촌인의 50%를 넘어섰다. <관련기사 17면>

29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인은 총 47만5489명으로 전년보다 1.9%(8711명) 증가했다.

귀촌가족은 전년보다 1.6%(5099가구) 늘어난 총 32만 2508가구였다.

귀촌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 농촌으로 이동한 사람을 의미한다. 학생·군인·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는 제외

된다.

과거에는 귀촌인 개념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 조건이 빠지고 목적에 상관없이 농촌으로 내려간 이들을 모두 포함하게 됐다.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20대 이하(26.3%), 30대(24.9%)가 전체 귀촌인의 51.2%를 차지했다. 귀촌인 절반 가량이 30대 이하 젊은 층이라는 의미다.

가구주 연령대도 30대(26.4%)가 가장 많았다. 40대(19.4%), 50대(18.8%), 20대(18.1%) 등 순이다. 가구주 10명 중 4명은 20~30대의 '젊은 가장'인 셈이다.

정부는 도심에서의 어려운 주변 환경 탓에 농촌으로 떠나는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귀촌인통계에는 단순 농촌이주 인구뿐만 아니라 전세난, 비싼 집값 등 주거난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신도시 등으로 이주한 가구



까지 포함돼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귀농인은 귀촌인에 비해 적지만, 전년 대비 7.5% 늘어난 1만3019명으로 집계됐다.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4.2세로 0.2세 높아졌다. 50대가 4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60대(25.4%), 40대(18.3%)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환경부, 전기차 907대 구매 보조금 127억 추가 배정

전국 48개 지자체에... 광주 126대·전남 68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기차 수요가 많은 광주·전남 등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907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 127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 추가 배정은 이들 지자체에서 전기차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이 배정된 곳은 광주(126대)·전남(68)·울산(216대)·세종(30대) 등으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전기차 추가 보급이 공고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전기차 구매자는 8월까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전국 주요 장소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를 2600여기로 늘릴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전국 충전기 관리실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올해 보급 목표인 1만4000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월호피해지원법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유족은 이후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현재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며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중·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3명에 미치지 못했다.

유족들은 2015년 6월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배상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국방부, 양심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필요 조치 검토"

국방부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할 방침인 데 대해 '필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권위 권고 사항이 아직 국방부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도착시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문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

한 대체복무제에 관해 "대통령 공약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법 개정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입장이 좀 정리가 돼야 법 개정 부분과 같이 조율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유출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기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인사실 등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062-364-8800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월 **4만 7천원**부터

농업 업무용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